

수입이 적을수록 산후 휴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가 많다. 남편의 직업에서는 기능적인 직업인 경우에 산후휴양기간에 따른 간호요구가 높았다. 올바른 산욕기간지식에 따른 간호요구는 교육수준별로 유의의 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종합모성보건 간호요구 지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가 4.10과 1.74이다.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으며 대상자간에 간호요구의 차가 크게 분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영유아간호요구에서는 올바른 보충식이의 시작시기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73%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건강지도 교육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6%, 예방접종 지식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은 44% 순서이다.

6. 종합 영유아간호요구 지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1과 1.32로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종합 영유아간호요구가 많으며 남편의 직업에서는 기능적인 직업에서 간호요구가 많았다.

7. 가족계획 간호요구에서는 생존아수로 본가족계획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5%, 인공유산유무에 따른 간호요구가 있는 가정이 53%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종합 가족계획 간호요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28과 1.39로 비교적 간호요구가 많다.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계획 간호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뿐아니라 높은 사람에게도 간호요구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도시지역 가정의 모자보건 관리가 아직도 소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가정의 모자보건 간호요구 충족은 지역사회 간호사업 접근법으로 보건사회부는 받아들여 시급히 시행되어져야 한다.

한국부인의 피임방법 속성별 선호태도에 관한 연구

중양의학, 36권 3호, pp. 201~207, 1979.

이 지 현

가족계획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클리닉방문부인의 일반적속성과 이들이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1977년 5월 1일부터 1978년 10월 31일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새 클리닉을 찾은 부인들 중 IUD, pill 및 injection을 택한 부인 621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주된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1. 621명의 응답자중 50%는 IUD를 39.5%는 pill을 택하였으며 10%만이 injection을 택하였다.

2. 응답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위와 같으나 의사에 의하여 실제로 주어진 방법중 이를 세가지를 받은 수는 IUD 선택자중 14.5%만이 선택한 방법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이 주어졌다.

3. 클리닉에 오는 사람 중 57.6%는 미리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서 오고 15.0%는 특정방법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서 오지만 27.4%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전혀 생각않고 방문한다.

4. 자녀가 많되 특히 아들이 한둘 있는 부인은 IUD 쪽을 더 택하며, 젊고 자녀가 적거나 아들이 없는 부인중에서는 pill 과 injection 을 더 택하였다.

5. 클리닉을 찾은 응답부인중 45.7%는 피임을 처음 시도하는 부인이었고, 17.0%는 재방이었으며, 20.6%는 그 전에하던 피임법을 중단한 지 1년 이내에 왔다.

6. 피임중단이유로는 부작용경험 38.7%, 의학적 부적 10.7%, 방법사용불편(특히 콘돔)26.5%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낭설과 남의 만류로 중단하는 자도 5.5%였다.

7. 클리닉에서 피임을 시작하면 47%는 가능한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31.6%는 5~6년 사용계획이었으며 9%는 1년미만만 사용하겠다는 것인 바 특히 pill 선택자중 1년미만만 쓰겠다는 부인이 16.2%였다.

8. IUD 선택부인중 52.2%는 IUD를 사용하는 친지를 알고 있었고, pill 선택자중에서는 pill 사용하는 친지를 알고 있는 것이 44.4%, injection 선택부인은 16.9%만이 injection 사용친지를 알고 있었다.

9.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합의해서 결정하는 부인은 47.8%이고, 31.0%는 남편이 부인이 피임하러 온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19.1%는 부인 혼자서 결정하였다. 2.1%는 남편 혼자서 결정하였다.

10. 82.9%는 의사가「서비스」해 주기를 원하고 2.9%는 간호원이 해주기를 원하였고, 14.2%는 아무나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pill 선택부인중 29.5%는 아무나 상관없다고 하였으며 67.6%는 pill 을 받더라도 의사에게서 받기를 원하였다.

11.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① 지속적효능, ② 피임효과, ③ 사용편의라는 속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일부청년들의 가족계획 및 인공유산에 대한 의견조사

중앙의학, 39권 2호 pp. 127~136, 1980.

도 복 늻외